



유통 수장들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
SNS 챌린지 공개
니



Life

CJ올리브영
앱인앱 '헬스+' 출시
웰니스 강화
L2



서울시의회, 풍물시장 활성화 위해 빠른 환경정비·부지 확보 등 주문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85건 접수
풍물시장 보수공사 등 시설물 점검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 관리 지시

서울시의회가 풍물시장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85건을 접수해 39건에 대한 조치를 끝냈고, 39건은 추진 중이다. 나머지 7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불법 임의증축에 대한 철거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중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바랍직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는 영업중지 기간 개별 점

포를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보수공사 완료 시기가 연기된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올 2월 초목동 방화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풍물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풍물시장이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8년부터 작년까 지 교육청과 부지 교환 협의를 총 4회 진행했으나, 재산 가치가 유사한 부지가 없어 합의가 불발됐으며, 향후 교환이나 매입을 통한 시장 부지 확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풍물시장 일대 노점 영업으로 인한 주차난·소음·통행 혼잡 문제와 관련해 시는 관할구청, 상인회와 협력, 이달부터 노점 단속 등 환경 정비를 시행하

기로 했다.

또 시의회는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시는 양대 노총 및 산하단체 중 일부가 퇴거를 완료했으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한 단체에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노총의 노동자복지관 점유 관련 사안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지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 관리비 등을 내고 공간을 이용해왔고, 이미 나갈 계획을 갖고 공간을 알아보는 중이니 퇴거를 재촉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미퇴거 9개 단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올 상반기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송파구 마천역 일대, 1650세대 아파트로

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회 확정
최고 39층 규모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송파구 마천역 일대에 최고 39층,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마천동 183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마천동 183 일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라면서 "대상지 주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성내천 복원 등의 잠재력에 주목해 고품격 주거단지 건립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통근·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마천역(2번 출구) 주변에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광장을 계획했다. 또 오는 2028년 복원 완료 예정인 성내천변에 수변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는 등 지역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배치 계획안. /서울시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마련했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내년 개통 예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마천로변에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지와 녹지,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또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최고 39층까지 건립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소식지, 전자책 플랫폼서 무료

'지금 서울 교육' 3월호부터 제곱 교보문고 등 4개 업체와 업무제휴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독서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등 4개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금 서울교육' 3월호부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e-book)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 서울교육'은 1999년 3월 창간호부터 제294호에 이르기까지 서울 교육 현장 모습과 주요 교육정책 정보를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소식지다.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전자책(e-book)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앱북(app-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4개의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에서 '지금 서울교육' 2024년 3월호부터 구독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매월 10일 책자 발간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휴를 통해 더 많은 독자가 대형 전자책 플랫폼으로 쉽게 '지금 서울교육'을 볼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확보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우이신설 연장선, 일괄입찰로 완공 빨라진다



서울시, '턴키 방식' 추진
완공 약 9개월 줄어든 것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턴키 방식은 입찰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보다 높은 기술력과 정밀시공이 가능하며 사업 일

정도 약 9개월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다. 총 42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우이신설선이 1호선 방학역과 연결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원 등 700곳, 스마트폰으로 안전 확인

파주시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약 700곳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을 스마트

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는 어린이 생활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 등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턴 사업 추진에 나섰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월 종이로 작성하는 안전 점검대장을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입

력할 수 있고,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해 요소 확인이 누락되거나 관리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내판에 부착된 정보 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놀이기구 안전검사 현황 ▲보험 가입 현황 ▲기구별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안전정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1일 (木)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0 ~ 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1, 동두천 -3/11, 가평 -3/11, 파주 -4/11, 서울 0/11, 양평 -2/11, 인천 1/9, 수원 1/10, 용인 1/10, 평택 -2/11, 백령도 3/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강인, 7000만원대 시계 착용하고 환한 미소로 귀국 /사진 뉴시스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에 누리꾼 "소고기와 상추쌈" 시골

▲햄스트링 부상 이정후, 또 시범경기 선발 라인업 제외
▲손흥민과 이강인, 합작골 나올까...21일 태국과 월드컵 예선 /사진 뉴시스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 도전' 피겨이해인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잡음 끊이지 않았던 야구인생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